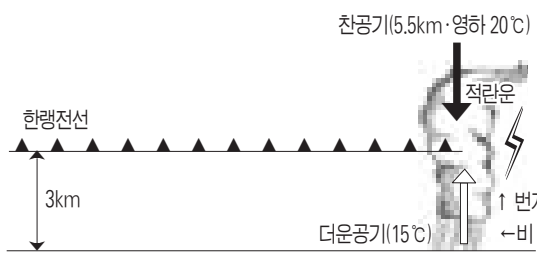


## ‘암흑세계’ 된 빗고을 왜?

지상 3km 상공서 한랭전선 형성  
적란운과 겹쳐...번개 동반 비구름



광주의 하늘이 19일 낮 철쭉처럼 어두워지면서 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쏟아져 내렸다. 빗고을 대낮이 갑자기 암흑세계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의 지상 위 3km 상공에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기 찬 공기가 만나면서 한랭전선이 형성된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한랭전선에서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들어 따뜻한 공기를 위로 치솟게 만들고, 비를 동반한 구름이 생성된다.

두 번째는 한랭전선보다 위(지상 위 5.5km)에 머물러 있던 영하 20도의 또 다른 찬 공기가 하강하면서 전선을 타고 올라온 따뜻한 공기(영상 15도)와 부딪혀 적란운(積亂雲)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적란운은 수직으로 발달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

낮 12시20분께 광주우체국 앞 200kW 변압기에 낙뢰가 떨어져 총장로 1~2가의 80여 건물에 일시 정전된 것도 적란운의 장난이다.

암흑 현상은 이날 오후까지 계속됐으며, 10mm의 비와 초속 12~16m의 강풍이 불었다. 가시거리도 평상시 15~20km에서 5km로 크게 떨어졌다.

광주지방기상청 심안섭 예보관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었다”면서 “한랭전선이 점차 남해로 빠져나가고 있어 20일 오전 5mm 정도의 비가 더 내린 뒤 오후 늦게부터 끝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 신안선관위, 군의원 10명 수사 의뢰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시 남포동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한화갑(무안·신안) 사무소에 후원금을 낸 A씨 등 군의원 10명과 B씨 등 일반인(민주당원) 3명 등 모두 13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 부터 지난 1월까지 1인당 10만~5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후원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무실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이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한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 “광주일보 보며 ‘논술 맥’ 찾아요”

## 장성고 전 학급 본보구독 ‘NIE 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NIE반을 선택한 장성고 학생들이 광주일보를 꼼꼼히 읽어 글 쓰기 능력과 논리력, 비판력, 창의력을 키우고 있다.

/장성=위정희기자 jrwi@kwangju.co.kr

농촌 지역 사립고등학교로 지난 1985년 개교 이후 올해까지 서울대에 57명, 연·고대에 154명을 합격시키고 9년 연속 졸업생 전원 4년제 대학 입학이라는 쾌거를 올리고 있는 장성고. 장성고 학생들에게 광주일보는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친근한 친구이자 논술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 도우미다.

전남 각 지역에서 몰려든 학생들은 신입생 시절부터 매일 교실로 배달되는 광주일보를 통해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줄줄이 꿰고 있다. 개교 이래 22년째 이어져 오다

## 개교 후 서울대 57명 등 졸업생 전원 4년대 합격 ‘살아있는 교과서’ 활용 체계적 글쓰기에 자신감

보니 장성고 학생들에게 광주일보 구독은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됐다. 지금까지 7천여명의 졸업생이 3년 내내 광주일보를 보고 학교를 떠나갔다. 학교 측은 예나 지금이나 1·2·3학년 24개 반 학습부장을 통해 광주일보를 1주일 단위로 관철해 학급에 비치해놓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지난해부터 수업에 신문을 활용하는 NIE반을 도입·시행하면서 광주일보를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엔 방과 후 교육 활동 28개 반 중 ▲NIE 1개 반 ▲신문 활용 및 논술 3개 반 등 4개 반을 개설, 광주일보를 주교재로 사용한다. 매일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 매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정보가 실리는 신문의 특성을 교육에 반영해 지적 성장을 꾀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육 방법.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정보가 실려있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광주·전남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정론지로 어떤 신문보다도 공정성이 높고 교재로써 제격이라는 판단에서다.

반옥진 교장은 “광주일보는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신문인데다 사회·경제·문화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 살아있는 현장감 있는 학습과 대학수능시험에서 요구하는 통합교과적인 논술대비에 유용해 교재로 채택해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생들은 광주일보를 보면서 ▲글을 읽고 결론 내리기 ▲글의 짜임 관계 파악하기 ▲사실 분석하기 등을 익혀 ▲종합적인 사고력 및 학습능력 향상 ▲독해 및 쓰기 능력 향상 ▲논리성과 비판력, 창의력 증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김민선(2년)양은 “글쓰기에 자신이 없던 NIE반을 선택했는데, 광주일보를 보면서 글의 소재가 되는 사회현상이나 이슈를 제대로 알게 됐고 글도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 7천억원대 ‘건설-금융 브로커’ 적발

## 건설사 자본금 위장 납입하고 알선료 챙겨 광주지검, 19명 기소...금융기관 수사 확대

지역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자본금 위장 납입 및 위장 계열사, 속칭 ‘강통회사’ 설립 등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기업형 ‘건설-금융 브로커’ 적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중호)는 법무사 사무장 등과 결합해 지역 영세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알선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 건설산업기부법 위반)로 D건설연구원 대표 박모(3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정보모(43)씨 등 법무사 사무장 4명과 윤모(36)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양모(34)씨를 약식기

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건설연구회라는 사적모임을 만들어 법무사 사무장들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1천600여의 영세건설업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7천억원대의 예탁금대출과 잔액증명서 발급 알선과 법인설립 자본금 대납 등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알선료의 1%를 중간에 챙기는 등 모두 70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산 9천800평, 아파트 3채, 고급 승용차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브로커, 금융기관, 건설업체 ‘한통속’=구속된 박씨 등은 경영상태가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을 상대로 건설업체에 7천억원대의 편법 대출을 알선해 왔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3천565개 전문건설업체 중 400~500개 업체가 이들을 통해 각종 건설금융 편의를 제공받았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실질자본금이나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속칭 ‘강통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불법 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6809)



연예2차(동림) 대주 피오레  
1,300여부(총 353부) 353부  
문의 (062)366-4220

“전원주택 강·절도범 조심하세요”

○렌트카를 타고 자동차 영업사원 행세를 하며 농어촌의 전원주택만을 돌며 금품을 도둑질한 전 문털이범이 경찰에 달미.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대낮에 농촌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6·영광군 영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10분께 나주시 금천면 박모(58)씨 집에 들어가 현금·금반지·목걸이 등 210만 원 상당을 훔쳤고, 6개월 동안 나주·광양·순천 등 전원주택 14곳에서 2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전씨는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자동차를 파는 척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창문을 뜯고 집에 들어가 물품을 훔쳐왔는데, 경찰은 이 신종 범행에 촉각을 세우며 전원주택 입주자들에게 주의를 당부.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2007학년도 수능시험 대비 학습을 목표로 하는 강사! **위재권 초·중·고 교육과정**

신비한역성이 입증하는 **출세 경찰이 가장 정통한 교원임용강좌**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 곽내영교육학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특색이 선명! ----- 교육학개강 5월 6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국어	영어	수학	일반사회	교육학	생물	물리	미술	체육
최병태	송욱	임대선	김형수	정경민	김치욱	정영민	김성희	김중호
미문물	송욱	임대선	김형수	정경민	김치욱	정영민	김성희	김중호

임대선 위재권교육학

교원임용고시의 **최정답!**

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선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정성된 학원강의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수강가능!

전국 최고의 유명강사진 송영길

교육학	영어교육	미술
국어	영어	수학
최병태	송욱	임대선
체육	공통과목	일반사회
김중호	정경민	김형수

현재 성형민 강의중

문의: (02)816-1646

대한민국 경찰 드림팀 광주 상륙!!!

노랑진 경찰학원 그명성 그대로...

# 김재규 경찰학원 탄생

개강 5월 1일

김재규 경찰학원 최고의 교수진

-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수사:곽대영 교수
- \*영어: 오순아 교수
- \*형법: 윤경근 교수 \*형소법: 윤경근 교수

김재규 경찰학원 전문 시스템

- 기본이론(오전)+문제풀이(오후)+기초특강
- 기본반, 심화반 선별 맞춤수강 전용 지습실 사용
- 다년간 경찰수험생들을 관리하고, 전문화된 학습 시스템

경찰공무원 멈추지 않는 합격신화!!

김재규 경찰학원 드림팀을 광주에서 직접 만나 시범반입니다.

www.police3112.com

경찰공무원의 꿈을 실현하는 곳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전남여고앞 236-3111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 공무원 첫진도·교정직특채

개강: 5월 1일 전문강사의 명쾌한 강의로 당신의 합격력을 앞당깁니다.

# 한빛공무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전남여고 건너편 ☎ 234-0234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분·원·출·신 수석 승 은 영 남 96.7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을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합격률 1위

www.gwangjugosi.com

227-8003

광주고시학원

주간 첫 진도 개강: 4월 15일

야간 첫 진도 개강: 4월 17일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 특별채용 1,000명!!

= 20세~40세 (직장인 공무원 되기위한 절호의 기회) =

특채 시험과목: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찰직 준비생 절호의 기회!(2과목만 하면된다.)

합격개강 수시모집

www.gwangjugosi.com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뒤 222-4560